

분당 열린내과의원
권 갑 수환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재미있는 **사** **리**

나는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많았다.

기억도 나지 않는 갓난아기 때 소아마비에 걸려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장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에도 신장이 나빠서 가끔씩 부종이 생기곤 했었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면서 그때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복막투석으로 9년, 혈액투석 1년 반, 이식으로 3년, 1998년 1월부터 다시 혈액투석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만성신부전으로 할 수 있는 풀 코스의 치료를 하면서 20여 년이 지났지만 처음 투석을 할 때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투석이라는 말조차 몰랐지만 요즘은 의료환경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미리 투석을 시작하는데 내가 처음 투석할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 했다.

복막투석도 요즘은 Two백 시스템이어서 드레인한 백을 다 버리고, 카테타만 나와있는데 내가 복막투석을 시작할 때만 해도 One백 시스템이어서 드레인한 빈 복막액 주머니를 항상 달고 다녔다.

혈액 투석을 시작 했을 때에도 투석 받으려면 멀리 가야만 했다. 처음 투석 할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투석 병원이 전혀 없었다. 분당에 처음 이사 왔을 때만해도 투석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서울 신사동까지 가야 했다.

요즘은 종합병원에는 물론이고, 구마다 인공신장실이 있고, 분당만해도 전문 인공 신장 의원이 2개나 있을 정도이다.

투석을 시작해서 적응 하는데 1년 정도 걸렸고, 그 이후로는 복막액을 차에 싣고 여행도 다녔다.

83년 12월 27일 복막투석을 시작해서 91년도에 처음 복막염에 걸렸고, 백내장이 있어서 88년, 89년에 걸쳐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다.

94년도 9월 24일에 장기운동본부의 소개로 뇌 사자의 신장이식을 서울중앙병원에서 받았다.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식한 장기에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렸는데 폐렴을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정기 진찰을 받고 다음날 친구의 등에 업혀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 갔다.

내과 중환자실은 넓은 홀이 있고, 한쪽사이드로 작은 방들이 있는데 제일 첫 방이 1호실이었는데 내가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인공호흡기를 하면 말을 못하지만 글로 써서 대화를 하면 된다고 말씀 하셨다.

그리고는 3일 정도 지난 후에 깨어났는데, 이게 웬일 정신은 있는데 눈도 뜰 수 없고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몇 일전 밀리언달러베이비란 영화를 봤는데 거기 여자 주인공이 전신마비로 인공호흡기를 하고 누워 있는데 손가락 하나 꺾을 수 없는 모습이 그 것과 똑 같았다. 내가 깨어 났다고 표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 것도 없었다.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전신마비였다. 하루 종일 누어 논 몸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번 간호사와 조무사가 몸을 뒤척여 주는데 10분 정도만 지나도 침대 면에 닿는 온몸의 피부가 아팠다. 심지어 손가락 마디부분이 손 무게 때문에 배겨서 아팠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배긴 몸을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모두 걸어 다니는 천사 같았다. 24시간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간호사들이 돌보는데 새벽에는 얼굴과 온몸을 닦아 주고 용변도 다 치워 준다. 내가 대꾸를 못해도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좀 회복이 되었을 때 심심하다고 라디오도 빌려 와서 듣게 해주었다.

중환자실의 환경이 앞에 환자들을 보면 거의 혼수상태의 환자들만 있었고, 중환자실 공간은 무언지 모르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이 뿌옇게 보였다. 헌신적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다.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는 거기를 못 나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병실로 옮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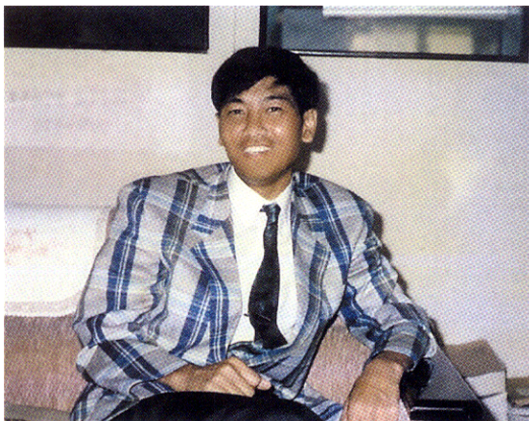
2003년 제주도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 때의 많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치료와 보살핌에 감사를 드린다.

퇴원해서 약 1년 반정도 이식한 신장의 기능으로 생활을 했으나 1998년 초에 담석증에 걸려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식한 신장도 기능이 거의 상실돼 다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이 어렵게 이식 받은 신장이 못쓰게 되었다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3년간이라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전에 투석하기 위해 팔목에 수술한 혈관이 막혀서 쓸 수 없게 되어서 인조혈관으로 투석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야만 했다. 혈관을 만든 후에 혈액투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83년에 복막투석을 시작한 이래 가장 어려웠던 때가 1998년 혈액투석을 다시 시작하면서이다. 1998년 초에 우리 나라 전체가 IMF체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였는데, 나의 주변 상황도 이에 못지 않게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직장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투석을 하면서 직장을 찾는다는



복막투석 환우회 사무실에서

것도 어렵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투석비를 마련할 수도 없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비참하게 만들었다. 정신적으로도 공황상태가 되어서 불 꺼진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앞날을 생각해도 캄캄하기만 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 나갈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는 사이에 몸도 점점 나빠져 가고 어쩔 수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해서도 살아서 세상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뿐이었다.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도 않고 나빠져만 가고 있었다. 걸어서 입원을 했는데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에서 투석실로 왔다 갔다 했다. 영양사가 와서 먹고 싶은 것을 얘기 하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고 투석을 받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 호흡곤란이 와서 간호사가 인공 호흡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가는데 이상하게도 아프던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밤을 보내고 투석을 받으러 갔을 때 투석실로 누가 가져온 죽을 많은 양은 아니지만 먹을 수가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먹기만 하면 미식거리고 토했는데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퇴원할 준비로 물리치료실에 가서 걷는 운동과 자전거를 타면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했다. 점점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몸도 점차 나아져 갔다. 입원한지 거의 6개월이 넘는 98년 12월 30일에 퇴원을 했다. 퇴원하면서 의료보호



속초관광
복막투석
환우들과 함께

1종이 되어서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1999년 1월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아직도 미흡하지만 조금씩 자립해 가고 있고, 또 자신감과 희망이 있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요즘은 의료기술과 의료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사회복지 차원의 혜택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시간 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내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닐 수가 있다.

대개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서워서 검사를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는 심각한 상태이면서도 발견을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할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치명적인 경우도 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도 건강이나, 물질적인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지만 이겨 나갈 수 있는 정신력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